

## 바이오플러스-화이바이오메드, 약물전달시스템 개발 MOU

출처: 데일리메디 분류: 뉴스-의료기기/IT 최종수정 2022.05.02 16:11 기사입력 2022.05.02 16:11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히알루론산(HA) 기반 더말필러 전문기업 바이오플러스(대표 정현규)가 약물전달시스템 전문기업 화이바이오메드와 바이오의약품 안정성과 서방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바이오플러스는 바이오의약품 안정성과 서방성(약효 지속기간)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스마트 나노의약 개발에 나선다.

또 기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추후 개발할 제품 사업화를 위해 화이바이오메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화이바이오메드는 포항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가 창업한 회사다. 성형 및 의료 소재, 바이오의약품 약물전달시스템, 조직공학용 재생의약, 진단 및 치료용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플러스는 또 자회사 유비프로틴과 서방성 주사제, 경구제, 경피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규 대표는 "두 회사는 유용 약물 소재와 의약품 제품 양산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질환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방성 치료제를 다양한 제형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Dailymedi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보건의료분야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